

왜 oblivoir인가?

노바디

2006년 9월 26일

요약

이 글은 oblivoir 클래스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. oblivoir라는 요상한 이름과는 달리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는 요긴한 클래스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. 이 편리한 클래스가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좀 써보자는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. 이 글은 광고지(짜라시)이지 매뉴얼이 아니므로 oblivoir의 사용법을 설명하지는 않는다.

1 oblivoir는 쉽다

사실, “쉽다”는 말은 거의 거짓말이다. 세상에 쉬운 것이 몇 가지나 되겠는가? 하물며 악명높은 L^AT_EX의 세계에서 쉽다는 것은 “쉬운 사람에게는 쉽다”는 뜻일 뿐이다. 그래도, 새로운 문서를 맨처음 작성하면서 아무런 설정도 할 필요 없이 바로 문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쉽다고 말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.

```
\documentclass{oblivoir}
\begin{document}
문서 내용
\end{document}
```

위의 코드는 oblivoir로 만드는 한글 문서의 가장 간단한 형식이다. 여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, 바로, 직접 `\begin{document}`를 시작해도 되게 되어 있다.

뭔가 쓸거리가 생각나서 에디터를 열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는데, `\begin{document}`까지 가는 데 이런저런 문장을 한참 쓰고 있다 보면, template을 부를 걸 하고 생각하게 된다. 그러나 또 그것마저 귀찮아져서 몇 줄만 더... 하다 보면 막상 글을 써야 할 데 가서는 뭘 쓸려고 했던 건지 잊어버리는 정도의 기억력을 가진 나는, 이런 클래스를 반드시 작성해야 했던 것이다.

oblivoir의 제작 목적 중의 하나는, 바로 번거로운 사전 설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다.

2 oblivoir는 편리하다

L^AT_EX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반드시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다.

1. A4 용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백이 너무 넓으므로 좁히고 싶다.
2.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울 수 없나? 11포인트는 너무 크고 10포인트는 작아 보인다.

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. oblivoir는 이러한 답변을 한 큐에, 간단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.

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비교해보기로 하자. 다음 소스는 이주호 님이 article로 작성한 것이었다.

```
\documentclass{article}
\usepackage[a4,cross,center]{crop}
\usepackage{geometry}

\usepackage{lineno}
\usepackage{times}
\usepackage[nonfrench]{dhucs}
\usepackage[default]{dhucs-interword}
\usepackage[unicode]{hyperref}
\usepackage{ifpdf}
\ifpdf
  \pdfmapfile{+unttf-pdftex-dhucs.map}
\fi

\usepackage{enumerate}

\renewcommand{\baselinestretch}{1.45}
\geometry{
  paperwidth=154truemm,
  paperheight=225truemm,
  left=25mm,
  right=25mm,
  textwidth=10.5cm,
  textheight=18cm,
  top=26truemm,
  bottom=24truemm,
  headsep=10truemm,
}
```

각각의 행이 무슨 의미인가는 앞으로 자명해질 것이다. 그런데, 이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oblivoir 프리엠프블은 다음과 같다.

```
\documentclass[a4paper,showtrims]{oblivoir}
\usepackage{fapapersize}
\usefapapersize{154mm,225mm,25mm,25mm,26mm,24mm}
\trimXmarks

\usepackage{lineno}
\usepackage{mathptmx}
```

```
\SetHangulSpace{1.45}{1.2}
```

crop 패키지에서와 같이 `\trimXmarks`를 꼭 그려주지 않아도 된다면,¹ 그리고 용지 사이즈를 임의의 사이즈로 하지 않고 `db14x6`과 같은 고정 사이즈로 한다면 여기서 두 행이 더 줄어든다. 그런 정도라면, 사실상 `oblivoir`에는 `preamble`이 거의 없어도 훌륭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, 용지 설정, 글꼴 설정 등이 매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.

`hangul-ucs`에서 임의의 한글 글꼴은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. 물론, 이런 임의의 글꼴이 아닌 기본 글꼴로 충분하고 또 그 쪽을 권장하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.

```
\SetHangulFonts{XXbt}{XXgt}{XXtz}
\SetHanjaFonts{XXbt}{XXgt}{XXtz}
```

`oblivoir`에서는 다음과 같다.

```
\SelectHfonts{XXbt,XXgt,XXtz}{*}
```

이 매크로 `\SelectHfonts`의 사용법은 별도의 문서를 참고할 일이지만, 아무튼 원래의 설정방법보다 조금 편리해진 것 아닌가 한다.

3 oblivoir는 강력하다

`oblivoir`(“오블리브와” 정도로 읽을 수 있을라나?)라는 이름은 *oblivescence*라는 말과 *memoir*를 합친 것이다. 이런 단어는 없다. 그러나 아무튼 “다 잊어버리고 써도 좋다”—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 본다.

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`memoir` 클래스이다. 즉 `oblivoir`는 `memoir`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. 예컨대 앞서 예에서 `\usepackage{enumerate}`와 같은 문장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은 `memoir`에 그 기능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. `oblivoir`를 쓰면서는 `memoir`의 문법을 그대로 쓸 수 있다.

이호재 님은 `memoir`에 익숙해지면서 `book`이나 `report`에서 쓰던 걸 다 “잊어먹었다”고 하신 적이 있다. 실은, `oblivoir`라는 이름은 이 말씀을 듣고 짓게 된 이름인 것이다. `memoir`의 강력함은 겪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. 예를 들면, 이주호 님이 *About Oblivoir*라는 글에서 이미 밝히신 대로, `chapter`가 시작하면서 그 이면이 빌 때 백면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것²이라든가, 열리는 면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든가, `page style`이나 `chapter style`을 정의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다.

4 oblivoir는 재미있다

세상에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터이나, `oblivoir`에는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무엇이 있다.

우선, 폰트 사용 관련이다. 과연 `pdfTeX`을 쓰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? 또 `dvips`가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? `hangul-ucs` 사용자들은 습관적으로

`dvipdfmx`를 쓴다. 최근 `pdfTeX`을 추천하는 경우가 늘었다고는 해도, 일단 `pdfTeX`으로 만들어지는 한글 pdf의 크기가 `dvipdfmx`의 경우보다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.³

`pdfTeX`과 `latex`에서 항상 어느쪽이든 컴파일이 이루어지도록, 이른바 “호환성높게”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. 비록 이런 호환성이 100% 항상 달성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컴파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재미있는 기능 중 하나는 `pdfTeX`, `LATEX`, `dvips`의 어느 루트를 선택하더라도 한글 텍스트의 검색과 추출이 가능하도록 기본 폰트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. 그리고 pdf bookmark를 붙이는 것이 기본 동작이라는 점 등이다. pdf bookmark가 필요없으면 `[nobookmarks]` 옵션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. `pdfTeX`과 `DVIPDFMx`를 위한 컴파일 루트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. 아무거나 원하는 것으로 컴파일하면 된다. 다만 `dvips`를 위해서는 `[dvips]` 옵션을 지정해야 한다. `[dvips]`에서 한글 텍스트의 검색·추출은,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나, 오랜 숙원이었다.⁴

또하나 재미있는 것은 `\kscntformat`이라는 매크로이다. 이 매크로 이름은 매우 익숙할 것으로 보는데, `HALTEX`에서 이미 쓰인 바 있고, `dhucs`의 `[hangul]` 옵션을 주었을 때도 유효하였다. 즉 section 모양의 설정이 가능했던 것이다.

```
\kscntformat{subsection}{제~}{~소절}
```

이러한 설정이 가능하다. 실제 사용할 일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아무튼....

5 oblivoir로 할 수 있는 일

`\book`, `\part`, `\chapter`부터 시작해야 하는 큰 규모의 글 쓰기라면 `memoir`가 정답일 것이다. 그러나 그보다는 작지만 `memoir`의 다양한 기능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,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글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면, `oblivoir`를 권장한다. 시험문제, 논문, 개요, `handout`, 메모, 편지, 광고지, 교안(教案), 참고자료.... 나는 상상가능한 거의 모든 문서를 이 클래스에서 시작하고 있다.

문서의 내용이 먼저이고, 레이아웃은 그 다음이다. 따라서 문서 작성에 있어서도 내용을 채우는 것이 먼저이고, `preamble`은 내용에 따라 조금씩 글의 진행에 따라, 필요에 따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. 그러자면, 내용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먼저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. 내가 생각할 때는 `oblivoir`가 그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나 한다. □

1. `oblivoir`의 기본값은 `trimLmarks`를 그리는 것이다.
2. 한때 `book` 클래스에서는 `\cedp`라는 명령을 만들어서 써야 했던 것이다. 이 명령 자체를 이주호 님이 처음 소개하였다.
3. 다만, 맥 사용자는 좀 다른 이유에서 `pdfTeX`을 선호할 것이다.
4. 사용자가 별도 글꼴을 설정해서 쓰는 경우에 이 기능은 (당연히) 동작하지 않는다.